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월례회의의 광경

주식회사 차려 이익금 회원에게 환원하는 안양·시흥지부

— 월례회의날은 「생산성향상 시리즈」 강의날

취재 : 이상길 기자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설상가상으로 님비현상까지 겹쳐 도심에서 점점 멀리 밀려나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수도권 양돈산업의 대표적인 케이스.

그러나 역경에 찬 전도를 묵묵히,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곳이 본회 안양·시흥지부(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847-29, 전화 : 0343-47-6579)이다.

생각하고 실천하는 진지한 기풍

서울 올림픽의 해였던 지난 '88년 9월 1일, 21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안양·시흥지부는 현재 안양과 시흥지역은 물론 과천시, 광명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등 수도권 위성도시 7개 지역 37명의 회원들이 소속돼 있다.

기자가 안양역 근처 안양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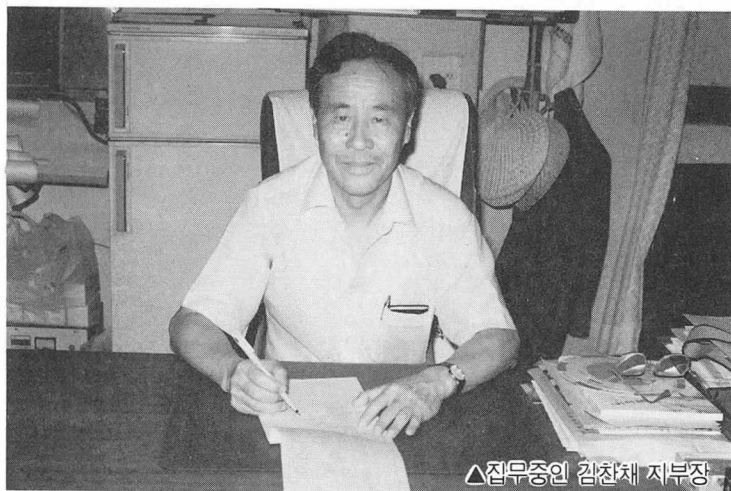
고 맞은편에 있는 지부 사무실을 찾았을 때 김찬채지부장(본회 이사)을 비롯 김종석부지부장과 박오석감사, 김동환감사, 안용승이사 등 지부임원들이 나와 창립기념일 행사 등 지부 업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다.

지부임원들과 대화도중 느낀 가장 큰 특징은 안양·시흥지부 회원들은 진지한 자세로 양돈에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심사숙고해서 결정되어지고, 모든 면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진지한 기풍이 느껴졌다.

주식회사 차려 사료 공동구매, 이익금은 지부 환원

지부운영의 특색은 사료공동구매사업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집무중인 김찬채 지부장

안양·시흥지부는 지난 '91년 2월 1일에 회원들이 10만원 내지 1백만원씩 출자하여 설립 자본금 5천만원으로 「축산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차렸다. 회원들이 내는 많지 않은 회비만으로는 도저히 지부운영이 안돼, 이를 타개하려고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오늘 짜임새 있는 안양·시흥지부를 있게 해 준 것이다.

회원이 아니면 절대 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정해 놓은 「축산개발주식회사」가 하는 일은 사료의 공동구매이다.

축산개발주식회사는 5대 사료회사의 우수한 사료를 대량 구입의 이점을 살려 할인 구입, 회원들에게는 시가의 10%가량 싸게 공급한다. '91년의 경우 주주 각자에게 출자액의 30%나 배당하고 나머지를 직원급여, 행사비용, 사무실 제반 관리

이처럼 참석률이 높은 이유는 김찬채지부장이 월례회의 때마다 슬라이드 교육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리즈」강의를 하기 때문이다. 주로 돼지질병이나 모범 양돈시설을 설명하는 슬라이드는 김지부장이 직접 촬영한 필름을 쓴다. 김지부장은 사진경력 11년에 전국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는 만능의 멋진 노신사이다.

“

안양·시흥지부는 지부장이 매월 직접 「생산성 향상시리즈」를 강의한다.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교재는 회원들에게 무엇보다 좋은 교과서가 되는 것이다.

”

비 등 지부운영에 사용했다고 한다.

지부장이 「생산성 향상 시리즈」 강의

안양·시흥지부의 활동중에 띄는 또하나 특징은 월례회의이다. 매달 15일을 월례회의 날로 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이날 회원들의 참석률은 거의 100%에 이른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리즈」강의는 ▲양돈 기본상식 ▲종돈의 선발과 관리 ▲모돈의 선발과 관리 ▲임신 및 분만관리 ▲포유자돈과 이유자돈 ▲육성 및 비육돈 관리 등을 내용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 올 12월에 종합요약을 끝으로 마치게 된다.

이 「시리즈」는 김지부장이 본회 「월간 양돈」을 기본으로 국내의 잡지, 전문서적을 망라,

자신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곧바로 해결할 수 있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며, 이 시리즈 강의 후에 회의 출석률이 이처럼 높아졌다고 한다.

매년 계통출하 성적 분석, 우수회원에게 표창패 수여

안양·시흥지부 회원들은 매년 8월에 회원농장을 3개소씩 순회방문한다. 이렇게 해서 회원 상호간 유대를 강화하고, 기술·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또 매년 12월에는 가족을 동반하는 「친선의 밤」행사를 개최하는데, 이날은 특히 회원들의 연간 성적을 분석, 우수회원에게 표창패를 준다.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제1의 조건은 출석률이 고, 다음이 계통출하 성적이다. 계통출하 성적은 출하두수, 출하차당 최고액, 평균단가, 개체 최고단가 등을 따진다.

이에 대해 「축산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기도 한 부지부장 김종석씨는 『표창패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개적으로 농장별 성적이 발표되고, 이로 인해 회원 각자의 정보와 기술이 교환되므로 상호간 선의의 경쟁의식을 심어 주어



▲안양·시흥지부는 매년 8월, 회원농가를 순회 방문한다.

사양기술 개선에 커다란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흥지부는 어떤 회의를 하든지 반드시 국민의례를 빼놓지 않는 것은 물론 의사봉을 꼭 사용한다. 이러한 정식절차를 존중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협회에 대한 귀속감과 기본적인 규범에 대한 엄숙한 의식을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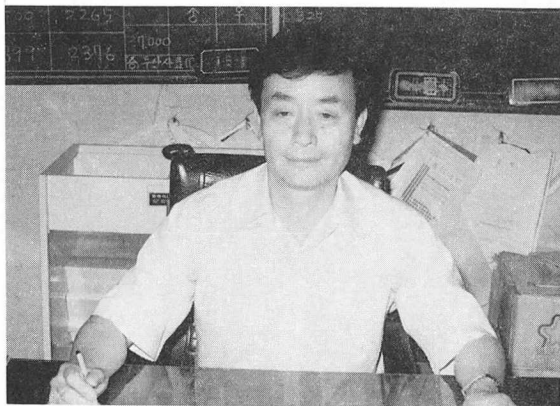
서울 3개 도매시장 평균가보다 1백50원이 높아

안양·시흥지부 돼지는 「우성농역」으로 계통출하 한다. 계통출하는 서울지부(지부장: 나일규)를 통해 하는데, 작년의 경우 지부 총 출하두수의 반 정도인 6천두 가량을 출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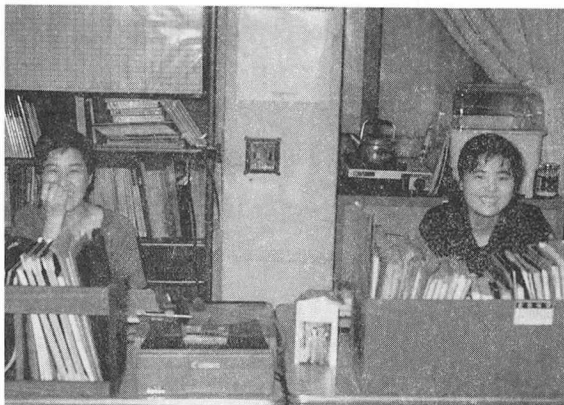
초창기에는 사육규모가 100~200두로 지극히 영세한데

다 사양기술 개선과 종돈개량도 지지부진해서, 특히 등지방 두께가 무척 두껍고 등급도 낮은 돼지가 많았었다. 그러나 계통출하를 하다 보니까 단가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육질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 본회의 공인종돈 능력검정소에서 종돈을 구입, 육질개량을 시작했다.

지부 종돈개량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안용승이사는 『전에는 품종개량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돼지와 옆집 돼지를 적당히 교배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농장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지역 돼지는 품질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협회를 중심으로 육질개량을 위해 가까운 제1검정소에서 종돈을 구입, 개량에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품질이 향상돼 지금은 서울 3개



▲김종석 부지부장



▲안양·시흥지부 여직원들. 오른쪽 이 박정자양, 왼쪽은 김중란양.

도매시장 평균가보다 1백50원 정도 더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안이사는 특히 경매전 「주간양돈정보」에 나오는 경매 카다로그를 보고, 필요한 돼지를 점찍어 뒀다가 꼭 구입한다고 한다.

「짜다」고 소문난 지부장

지부회원들은 회의시가 아니라도 만날 때면 향시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에 관한 얘기를 나눈다. 또한 월례회의시에는 지부장 외에 회원중 각분야에 정통한 분을 강사로 해서 필요한 강의를 듣는다.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접 하는 강의는 더욱 실감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 예로 「자본수익률」에 관해서는 김동환 감사(경희대 경제학과졸)가 강의하는 식이다.

안양·시흥지부는 '92년을 「기록과 분석의 해」로 잡고 모돈관리기록표를 인쇄, 회원들에게 나눠줬다. 또한 ▲육질개선으로 고급육 생산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사양관리, 향상 ▲잔류항생제 근절 ▲오·폐수처리시설 완비 ▲효과적인 방역 ▲회원 친선과 단합 등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이며, 돼지콜레라 백신을 구입, 회원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김찬채지부장은 기안용지도 이면지를 쓴다. 이러한 지부운영 자세가 오늘의 안양·시흥지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안정기에 있는 안양·시흥지부. 어려움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도시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린벨트에 묶여 돈사 신축도 못하고 있고, 또 특별청

소구역이라 분뇨처리문제도 고민이다.

많은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지만 안양·시흥지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회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다. **■**

안양·시흥지부 임직원 명단

- ▲지부장 : 김찬채
- ▲부지부장 : 김종석, 김춘자
- ▲이사 : 안용승, 김창일, 변창만, 한인전
- ▲감사 : 박오석, 김동환
- ▲운영위원 : 이문용, 유득한, 조근래, 윤왕진, 김경택, 이은구, 신관호, 이복술, 조성운, 유세홍, 김황현